

# 안중근 의사 '흔' 담긴 미공개 친필 유묵 첫 공개

## 대한의군 참모중장 유묵 특별전

광주 동곡뮤지엄서 내달 1일부터 1910년 3월 옥중 마지막 작품 등 유품·서적 등 아카이브 자료 30점 "대한민국 국민 자부심 느껴지길"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기를 일깨우는 전시가 찾아온다.

광주 광산구에 자리한 동곡뮤지엄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유묵 특별전'을 삼일절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안중근 의사가 생을 마감하기 전인 1910년 3월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진 미공개 친필 유묵 '각소음수락재기중 喫蔬飲水藥在其中'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의 삶과 동양평화사상을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 실제 사용한 유품·서적 등 30여점이 함께 전시된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에는 "나물 먹고 물 마시니 그 속에 즐거움이 있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그가 '평화'라는 이상을 꿈꾸는 위인임과 동시에 소탈한 인품을 지녔다는 걸 엿볼 수 있다.



20일 김대환 동곡뮤지엄 관장이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유묵 특별전' 기자간담회가 열린 광주 광산구 동곡뮤지엄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각소음수락재기중 喫蔬飲水藥在其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염원하며 하얼빈에서 의거를 단행한다. 이토 히로부미 처단에 성공한 안중근 의사는 체포된 후 뒤순 감옥에 수감돼 죽음을 앞두게 된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굳건한 신념을 유지하며 이번 전시에 선보일 유묵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완성된 그의 유묵

은 단순한 서예 작품을 넘어 독립 정신과 동양평화 사상이 담긴 '흔의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소박한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자 했던 안중근 의사의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본연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낸 것이다.

이 밖에도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쓴 서

예작 1점을 포함해 그가 당대 일본인들에게 행사했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들도 함께 전시됐다. 이에 더해 동곡뮤지엄 측은 당시 안중근 의사가 사살한 인물이 일본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추앙받던 사람인지 알려 안중근의 업적을 더욱 강조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동곡뮤지엄 관장은 "역사를 뒤 흔든 결단을 내리기까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최초로 공개되는 그의 유묵과 함께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만한 전시품들이 가득 마련됐다. 안중근 의사의 정기를 받아 모든 국민이 어려운 정국을 잘 헤쳐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혼란과 불안, 극단적 사상과 폭력성에 노출된 한국 사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삶과 업적을 돌아보는 동시에, 그의 정신과 사상을 오늘날의 국민이 성찰하고 미래의 평화와 화합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현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평화적 메시지를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동곡뮤지엄(062-945-007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곡뮤지엄은 명칭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곡미술관·박물관의 통합된 새로운 이름으로 올해부터 공식 사용된다.

글·사진·박찬기 기자 chan.park@jnilbo.com

## 컬리너리 회화작 15점... 초대전 'Organization' 눈길

### 28일까지 산수아트스페이스 재개관 후 첫 초대기획전 열려 21일 '작가와의 만남' 개최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재개관한 광주 동구 산수아트스페이스에서 첫 초대전 컬리너리 작가의 'Organization'전이 열리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컬리너리 작가 초대전은 구상과 비구상을 혼재한 이미지 구성을 통해 탄생한 흡입력 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인체 형상들의 자유로운 몸짓을 추상적으로 재구성해 온 작가는 이를 통해 현실의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는 인간의 몸짓을 구현했다.

컬리너리의 작품들은 강렬한 원색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울동적으로 배치된 이미지로 마치 하나의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 이처럼 이미지 하나하나를 쫓아 시선을 옮기다 보면 화면 속 이야기의 심연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화면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붓질을 암시하게 만드는 울동적인 선의 움직임과 화려한 색면들의 대비는 삶의 강렬한 에너지와 자유로움을 체감하게 만든다.

컬리너리 작가는 신안 출신으로 현재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에 재



컬리너리 작 'shape'. 산수아트스페이스 제공

학 중이다. 그는 지난해 전남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서울옥션 전시에서 출품된 7점의 작품이 모두 팔리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또한 KBS의 '역사한번잡합시다', '삼남매가 용감하게', SBS의 '사내맞선', EN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드라마 배경 작품으로 그의 회화작이 출품됐다.

장민한 산수아트스페이스 대표는 "컬리너리 작품의 매력은 화면의 강렬한 몰입감,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 이미지들을 통한 극적인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이번 전시에서는 기계적인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가 줄 수 없는 회화의 살아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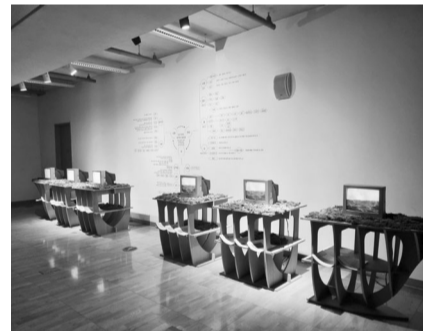
## "기후 위기 속 증강현실로 체험하는 아시아 해양 문화"

### 23일까지 ACC 복합전시 5관 '무진장(無盡藏) 아시아' 선배 공간 컴퓨팅 기술 활용한 전시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바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체험형 전시를 통해 풀어낸 공간이 마련돼 이목이 쏠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 5관에서 오는 23일까지 체험할 수 있는 '무진장(無盡藏) 아시아'는 '공간 컴퓨팅 기술(spatial computing)'을 활용해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해양'이라는 관점에서 엿볼 수 있는 융복합 콘텐츠 전시다.

'무진장(無盡藏) 아시아'를 마지막으



로 즐길 수 있는 주말을 앞두고 찾은 20일 전시 현장에서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아시아의 '해상', '심해', '섬'의 시점에서 중첩된 디지털 세계를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이곳에 비치된 4개의 애플 비전프로를 사용해 2300만 화소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속에서 전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3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 구역을 눈짓과 핸드트래킹으로 탐험하고 해양의 자원 아이템을 소환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러한 디지털 작업은 심해를 단순히 신비의 영역만으로 한정 짓지 않고 역사적 고통을 담고자 기획됐다. 동시에 미래를 향한 연대와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구현된 콘텐츠들이 그 의미를 확장했다는 평가다. 벽면에는 '무진장 아시아'의 개념에 관한 전시도가 그려져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 밖에도 '무진장 아카이브'에서 아시아 지중해를 소개한 신문기사, 저서 등으로 아시아의 해양 이미지와 단어를 배치해 아시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도 제공된다. 이정준·정승우 수습기자

## '현장의 눈빛' 2025광주·전남 보도사진전

### 26일~내달 4일 광주신세계백화점 KIA타이거즈 우승 순간 등 100여점

'현장의 눈빛' 2025 광주·전남 보도사진전이 26일부터 3월4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사진기자회(회장 김진수)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사건·사고, 그리고

삶의 온기를 전하는 미담을 담은 100여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KIA 타이거즈의 우승 순간,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탄핵 촉구,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안타까운 사연 등 사진기자들의 다양한 앵글을 통해 담긴 찰나의 순간들을 볼 수 있다. 한편 제20회 박경완 기자상에는 뉴시스 이영주 기자의 '제주항공 참사 무안국제공항 주변 철새떼'가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막식은 26일 오전 11시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전시된 작품들은 개막 당일 광주전남사진기자회 누리집(https://www.sajingija.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김진수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은 "보도사진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들이 지나온 길의 흔적"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역사적 순간과 감동을 많은 시민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박찬기 기자

## 광주여성가족재단, 제8회 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 개최

### 성평등 담론을 예술적 통찰로 전망 내달 18일까지...시각예술 분야 전시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역 작가 및 기획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통찰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8회 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을 다음달 18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은 여성주의와 성평등 인식 확산 및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8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23팀을 선정해 수준 높은 독창적인 전시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해 청사 이전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편의시설이자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디자인 등 시각예술 모든 분

야를 대상으로 성평등·여성주의·가족 관련 기획을 우대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1350만원으로 히스토리상(1팀) 수상자에게는 상금 550만원, 최우수상(1팀)에게는 상금 450만원, 우수상(1팀)에게는 상금 3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와 함께 여성전시관 전시공간 무상 지원, 온라인 전시를 위한 영상촬영 등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팀은 다음달 중 홈페이지 공

지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팀의 전시는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여성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 또는 인스타그램(@gjwomenfamily)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062-670-0534.

박찬기 기자